

# 아르헨티나, 석유 투자기업 “감세”

## 10억달러 투자하면 20% 무관세 적용 ... 유전개발로 수입의존도 낮춰

아르헨티나가 석유·천연가스산업의 투자를 위해 과감한 감세 방안을 내놓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7월16일 석유·천연가스산업을 육성하고 수입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투자기업에게 감세 혜택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투자기업은 앞으로 5년간 10억달러 이상 투자하면 석유·천연가스 생산량의 20%를 세금 없이 수출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헨티나의 석유·천연가스 수입은 13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파타고니아 지역에 분포된 석유·천연가스 유전을 개발함으로써 수입의존도를 낮출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르헨티나는 2012년 4월 스페인 석유화학기업인 렘솔(Repsol)의 자회사인 YPF의 지분 51%를 국유화한 바 있다.

YPF는 국영이었으나 1993년 민영화됐으며, 1999년 렘솔에 인수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7/17>